

2027 충청 U대회 성공

개최 꿈꾸는 힘찬달리기

세종시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1회 세종시 전국마라톤 대회'가 성료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세종시장에 인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와 안전한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참가자와 관계자 등 총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부 10km 긴 강구간과 일반부 5km 구간, 학생부 5km 구간으로 진행됐다. 대회 현장에서는 시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응원의 합성을 나누며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다채로운 경품추첨까지 진행하면서 마라톤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세종을 방문한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한다”며 “막힌 길을 뚫고 나아가는 순수 한글말인 ‘아리ारी’처럼 모두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연출기획단 '서툼'이 제25회 양산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채봉 기자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연인원 30만 명 돌파해

충북도의 대표 생활밀착형 고용정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2025년 11월 현재 연인원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4년(연 10만 5천 명) 대비 286%, 2022년 시범사업(연 804명) 대비 무려 373배 증가한 수치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틈새형 일자리 모델로, 이제는 충북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 고용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도는 근로자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으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전자서명제 도입을 통해 온라인 신청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참여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속 3개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의 고용률은 '2022년 71% → 2025년 74%'로 상승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3년간 23,000명 감소, 제조업 빈 일자리율은 1.06%로 절반 이하 감소했다. 도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시근로자 사업을 '충북형 지역활력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키며 도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중점에 두고 안전·보건교육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고용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두환 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충남 AI특위 출범 ‘AI 대전환’을 이끈다

AI 대전환 선언…AI 생태계 만들고 제조산업 혁신, 대한민국 AI 시대 선도



글로벌 빅테크,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전문가를 응원군으로 열고, 도내 산업과 농축수산, 공공까지 전 분야에 걸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장정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충남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남 AI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태홍 지사와 도내 기업·대학·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AI 대전환 선언은 전례없는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속 도내 산업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전명하는 의미가 있다.

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충남 AI 대전환'을 비전으로 우선 잡고, △AI 기반 혁신 거점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펀드 3배 이상 확대 △창업 공간 50% 이상 확대 △AI 특화 인력 1

만 5000명 이상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제조공정 AX는 제조 AI 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잡고, AI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R&D) 및 인증 지원, 반도체·모빌리티 특화 인프라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농수축산 분야는 AX를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복합 바이오산업은 AI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첨단 교통, 자능형 도시관리 시스템 등 AI 선도 모델을 도입해 첨단 도시를 만들고,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행정 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세부 사업 계획 등은 AI 특위를 통해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부터 AI 전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제조공정 AI 전환 얼라이언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태홍 지사는 “충남에 인공지능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충남 AI 대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중구 공무원노조 노사협의회 개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17개 안건 합의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만)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 17개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협의회에는 김제선 청장을 비롯하여 협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이정만 노조위원장과 노조 임원 등 10명이 참석하여, ▲장기재직휴가 이월 ▲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시설개선 ▲공무원노조 문화행사비 지원 증액 및 노조사무실 시설 환경개선 ▲청사 내 사무공간 확보 등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구는 그동안 노사협의회 안건 논의의 위해 노사 간 2회에 걸쳐 실무협의의 진행했으며 특히, 구청사 노후화 및 청사 내 업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리킴 선화동 빌딩'대부계약 체결을 통한 외부청사 활용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채봉 기자

오늘은 ‘불조심 퍼레이드’ 캠페인



대전서부소방서(서장 김화식)는 11일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방차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번 퍼레이드는 도마큰시장을 시작으로 서대전네거리까지 이어지는 계백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소방차 7대가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겨울철 화재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병행해 실제 출동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퍼레이드 중 선두차량의 양보 요령 안내 방송과 경광등·사이렌 작동을 통해 소방차 접근 시 즉각적인 양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계도, 일반차량 양보운전 체험 유도 등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통해 동절기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김화식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도착이 인명과 재산 보호의 핵심”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 모두가 화재 예방에 동참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5 대학만화웹툰최강전'을 개최한다. 전국 웹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시상하고, 웹툰 기업과의 1:1 매칭 상담회, 웹툰 작가 토크쇼 등 부대행사를 통해 웹툰 창작 생태계의 장을 마련한다.

이채봉 기자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본격 추진한다

11월 15일~내년 3월 15일 대설·한파 대비 상황실 운영 및 재해예방 체계 강화

충청북도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농산과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정상 근무를 유지하되 기상 상황과 재해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무 체계를 전환하고, 필요시 비상근무를 실시해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스마트농산과와 축수산과 등 2개 과 41명으로 구성되며, 시군 및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재해 취약시설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물 위로 쌓인 눈의 수시 제설과 함께 제설장비·난방시설 등 주요 장비의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 선택과 온도 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하우스 내 보강지주 설치, 보온피복 유지, 배수로 정비 등 농업인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특보와 농업인 행동요령을 시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재해유형별 대응 요령을 지속적

으로 홍보해 재해 발생 전 사전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재해 발생 시에는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 복구 조치와 함께 복구계획을 시군→도→농식품부 순으로 보고하여 피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운영할 계획이다. 황규석 과장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은 제설작업과 보강지주 설치, 난방기 관리, 보온피복 점검 등 사전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겨울철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